

“서울공화국 극복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언론·대학 힘 합쳐
정상 국가기능 회복 나서야”
국회·정부에 촉구 목소리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운영의 패
라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지방분권개헌
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사람과 자본·정
보를 독점하는 퇴행적이고 시대역행적인
‘서울공화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
국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개헌을 통해 연
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만들기를 약속했다. 이는 서울 중심의 중
앙집권적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정
상적인 국가 반열에 올리지도, 지금 수준
의 나라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절박한 심
정에서 나온 고뇌로 이해된다.

대책 없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대
책 부재, 공교육 붕괴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부패지수는 높
고 사회 갈등지수는 더 높다. 이는 더 이상
정상 기능이 어려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시스템’이 핵심적
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막고 지방정부
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과감하게 넘
기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비
로소 시작된다고 지역민들은 진단한다.

하지만,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온갖 기
득권을 누려온 중앙정부와 언론,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은 이 같은 진단에 반발하
며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지방분권개헌보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의 권한 강화
등 권력구조개편에만 초점을 맞춰 개헌안
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 언론, 대학 등이 연합
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특히 오는 9월쯤 국회 개헌특위가 내
놓을 개헌안에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고민
이 얼마나 담겨져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국회의원들이 기대에 못미치는 지방분
권개헌안을 내놓을 경우 ‘반(反)국회 투쟁’
을 벌이는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직접 지방
분권개헌안 발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유한호 광주대 교수(광주시 지방분권협
의회 위원장)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주요 지표인 만큼
지방분권은 선진국으로 가는 전제 조건
으로, 반드시 이번 시기에 이뤄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현영기자 cki@

文대통령-시진핑 첫 한·중정상회담

문재인(사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이 6일(이하 현지시간) 첫 한중정상회
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독일 베를린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오전 9시5분
에 시작해 10시14분까지 7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지역평
화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
력관계에 있다”며 “한중관계가 실질적 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마
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제 시 주석은 “우리는 솔직하게 소통



하고 이를 통해 이해
를 증진시키고 중한
관계 개선발전과 지
역평화발전을 수호하
기 위해 함께 노력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독일 메르켈 총리와
의 만찬 회담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부터 8일까지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함부르
크로 향한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광양 석정 터널에 문 연 와인동굴 6월 광양시 광양읍 용강정수장 석정 1터널에 꾸며진 와인동굴에서 관계자들이 개장식(7일)을 앞두고 최종 점검하고 있다. 와인 동굴에는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전시장과 카페테리아, 미디어 파사드가 운영된다. /최현배기자 choi@

“민간공원 개발 규모·층수 제어할 지침 만들어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견 민관협의체 구성도 촉구

도시공원의 보존과 적정수준의 개발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
침이 높다.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으로는 고층 아파트단지 개발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6
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침 수립, 민관협의
체 구성 등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민간공
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의 현안 이슈로 부
상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의원들
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
업 1단계 사업대상인 수암·마록·송암·
봉산공원에 대한 제안 접수에 의향서를
낸 업체는 54곳에 이르고 있다. 충북에
넣은 의향서까지 포함하면 4개 공원에 무
려 96개의 의향서가 접수된 상태다. ‘공
원 안의 고층아파트’라는 매력 자체에 1
군 건설업체, 신축회사 등까지 나선 것이
다. 사업성을 우선시하는 업체의 특성상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수익

을 내고 그 가운데 일부를 공원 조성에 투
입할 것으로 광주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공원관련부서뿐 아니라 도시계획, 주택
건설, 도시재생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관
련 지침을 수립하고, 시민과 행정, 전문
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민
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중
앙·중외·일곡 등 대규모 공원의 경우 국
가도시공원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
령 개정 등에 나설 것도 광주시와 정치권
에 요구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인 권은희 의
원은 이날 광주일보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우선 정책적인 접근에 나서겠
다”며 “당 차원에서 도시 공원을 보존
하기 위해 조만간 당론 마련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도시 공
원 개발이 건설업자들의 이권 사업이 돼
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과 함께 광주의
희망이자 첨단인 도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도
우선 국가공원 지정 관련법을 개정, 도

시공원이 국가공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 공원 개발과 관련된 특례
법에서 공공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 국
회의원들과 광주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 등을 갖고 도시 공
원 개발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시간이 없고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지도
력을 발휘해야 할 시장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
다”며 “광주시가 공원 개발에 대한 지침
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그것을 중앙부
처의 모델로 만들어가는 조치가 시급
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사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국정자문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최장 열흘 황금연휴 기대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활
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
진표 위원장은 6일 “올해 추석 연
휴 전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
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
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
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질
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10월 2일은 일요일과 개
천절 사이에 끼여 있는 월요일로,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
우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민간도
많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임동욱기자 tuim@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목~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711 718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아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아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부터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여행), 1박 2일, 국내선항공 5시간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불포함사항: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2인)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999,000원 부터

(특별할 오전 자유시간)

- 포함사항: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행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배낭
- 불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메리트, 싱글차지(3박 - 중독금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담 노음산

다낭·후에·호이안 1,299,000원 부터

- 포함사항: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행상의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 식사, 현지 가이드, 메리트, 베트남관광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불포함사항: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2인)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개발위원회의 주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주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여행), 1박 2일, 국내선항공 5시간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 1인 기준 ◆ 예약시 계약서(세칙)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숙박, 식사, 가이드,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